

공동체 소식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살아 계신 주 하느님, 주님 백성이 이 제대에 모여 새 계약의 제사를 봉헌하오니,
저희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어, 이 어린양의 잔치에서
천상 예루살렘의 영원한 파스카 음식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6월 기도지향

-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카타리나 가정
-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가정

예수성심성월

교회는 해마다 유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과 묵상을 강조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성심께 우리 삶의 고뇌를 의탁합시다.

신심미사

- 예수성심미사 : 6/12(금)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성모성심미사 : 6/13(토) 오전 10시, 묵주의 기도(미사 30분 전)

“성령 안에 말씀과 함께” 피정

- 6/26(금) 오후 7시 : 미사와 특강(다과)
 - 6/27(토) 오후 4시 : 특강과 나눔, 안수기도(간단한 식사)
- ☞ 오스틴본당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5명의 봉사자와 함께 피정지도를 오십니다. 오늘부터 전례부에서 피정 접수 받습니다. 함께 하시어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 청주교구 사제 모임(6/1~5) 잘 다녀왔습니다.
- Holy Trinity 본당의 날(6/6) 행사에 함께 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구역회의 결정대로, 6월부터 8월까지 구역모임은 없습니다.
- 사제관 리노베이션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불편을 감수하시는 신부님께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되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68	217	163/180	38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예찬 미카엘 차민서 임마누엘	안광민 야고보 김준영 요셉
차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민서 임마누엘	안광민 야고보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 안젤라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가타리나
차주	최은미 아네스	차호섭 요셉 최선윤 마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 김화년, 안현숙
차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차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5/31	73명	305불	1,130불
류기범, 김태중, 정준구, 고영방(총 4세대)			

☞ 특별헌금 : 이우석, 김진미(합계 30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셨고,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는 이 미사에서, 그 지극한 사랑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그림 묵상

생명의 빵

예수님은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미사때마다 성체를 모셔야 합니다. 이웃의 사랑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늘 기억함으로써 성체의 신비를내 안에 담게 될 것입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24,3-8

< 이는 주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

화 답 송 :



구 원 의 잔 받 들 고 서 주 님 의 이 름 을 부 르 리 라.

○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오리
구원의 잔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

○ 가혹할손 주님의 눈에 성도들의 죽음이여 주님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자식입니다.
주님께서 제 사슬을 끊어 주셨나이다. ◎

○ 주님 당신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미의 제사를 올리리이다.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저의 서원을 채워 드리리이다. ◎

제 2 독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9,11-15

<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2-16.22-26

<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



“우리의 계약”



제1독서인 탈출기에서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고 백성들은 그 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을 확정하기 위해 백성은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구약성경의 예식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대사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마치 대사제가 속죄의 날에 일 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씻는 제사를 봉헌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대사제가 드렸던 제사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바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죄에서의 해방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구약의 대사제와 같은 모습이고 또 그 제물 역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은 제사의 집전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의 제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독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선사한 선물을 구약의 제사와 계약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 때에,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모세가 하느님과 맺었던 것이 옛계약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믿는 이들과 맺은 계약은 새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동물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옛계약 안에서 바치던 동물을 바치는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다른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하고 결정적인 희생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은 모두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딱딱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계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꼭 해야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그 죽음이 보여주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부분입니다. 우리의 계약, 새로운 계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통해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가톨릭대학 허규 신부 -



제 3 편 자기 성화

제 9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마태 7,13-14).

【주석】

좁은 문 :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에서, 사람이면 누구나 언젠가는 택일해야 하는 “두 가지 길”이라는 고전적 도식(신명 29, 15-20)을 이어받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산상설교에 담겨 있는 철저한 요구 사항, 또는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절박한 부름을 시사한다(주석 성경, 신약, 64).

【설명】

▶ 산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은 결국 생명이나 죽음, 행복이나 저주를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을 이끄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좁은 문이 아닌 쉽고 편한 길을 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신명 30,19).

▶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마태 25,20-21).

【교회의 가르침】

▶ “어떠한 신분이나 계층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으로” 부름을 받는다. 인간은 모두가 성덕의 소명을 받았다(가톨릭교회교리서, 2013항).

【어록】

▶ 성덕이란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정욕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과 세상의 일들을 진정으로 그리고 꾸준히 떨쳐버려, 빈곤이 부유함에 우선하고, 겸손이 명성에 우선하며, 고통이 쾌락에 우선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덕이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덕이란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덕을 베풀 만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1915년).

▶ 모욕을 참아내는 것, 분노를 억제하는 것,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무례한 짓을 용서해 주는 것, 자기 뜻을 누르는 것 등의 작은 덕행은 언제라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신앙생활 보감」, 천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